



## 경준해,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및 전국정협 14기 2차 회의 정신 전달대회서 강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 깊이 학습 관철하고 신질생산력으로 길림의 고품질 발전 선도 지지해야

### 호옥정 주국현 참석

12일,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및 전국정협 14기 2차 회의 정신 전달대회가 영상 형식으로 소집되었다.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가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국 당회 기간에 발표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전국 당회의 포지 요구를 착실하게 락착하며 신질생산력으로 길림의 고품질 발전을 선도, 지지하고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이 실현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과 성정협 주석 주국현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전국 당회 기간에 발표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정신, 전국정협 14기 2차 회의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 당회 기간에 발표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신질생산력의 발전, 각종 인재혁신 활력, 잠재력의 격발, 생태의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것과 신홍 분야에서 전략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등 중대한 시대 명제, 실천 과제에 대해 깊이있게 사색하고 중요한 포지를 했다. 연설은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투철하게 료해했으며 시야가 넓고 내포가 깊으며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전략성, 선도성을 띠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두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가지 수호'의 정치적 고도를 견결히 지키며 동북 사찰, 길림 사찰 시의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과 긴밀히 결합하여 학습, 관철하고 일체제, 일체관철, 일체락착으로 습근평 총서기는 효력이 있고 당중앙은 포지가 있으며 길림은 행동이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국 당회의 제반 임무가 착지되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는 관건은 락착을 틀어쥐고 실무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거두는 데 있다. 첫째, 내수확대로 경제 회복과 호조를 지지하고 질과 량의 병행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소비의 질적 제고와 승급을 추동하고 외자 안정, 대외무역 안정에 힘을 쓰며 길림의 전면 진흥이 상정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 신질생산력으로 현대화 산업체계의 건설을 선도하고 '1주 6쌍' 고품질 발전전략, '4대 집군' 육성, '6신산업' 발전, '4대 시설' 건설의 실시를 긴밀히 둘러싸고 신질산업사슬을 배치하며 신기술, 신요소, 신모식을 리용하여 전통 우세산업을 개조, 제고하고 신홍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산업을 전망적으로 배치하고 산업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혁신으로 고품질 발전의 선수를 잘 두고 성내 대원(大院), 대소(大所), 대교(大校), 대기업(大企)의 혁신 주력군과 발원지(策源地)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의 원, 소, 기업의 선진기술과 대상을 적극 인입하고 전체 사슬의 배치, 전체 주기의 협동을 심화하며 체제, 기제의 혁신, 응용 장면의 육성, 산업생태의 건설을 강화하고 더욱 적

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정책을 실시하고 량질의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생산력, 신질생산력으로 다그쳐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개혁의 심화로 전면 진흥에 힘을 축적하고 능력을 부여하며 '개방'과 '활성'의 병행을 계속 견지하고 사상개방, 개방포용, 개방활성(开放搞活) 중점 분야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틀어쥐며 정부 직능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환경 최적화 중점행동을 실시하며 '5가지 합작'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중앙기업의 재배치, 민영기업의 대발전, 외국기업의 빠른 류입을 흡인해야 한다. 다섯째, 현대화 대응업으로 '3농'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고 대응업관, 대응식관을 확고하게 수립하며 현대농업대기지, 대기업, 대산업의 건설에 주력하고 '전역군 량식' 생산능력 건설공정년도 임무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국가 량곡안전 수호의 중임을 견결히 짊어져야 한다. '천만 공정'의 경험을 학습, 운용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해야 한다. 여섯째, 녹색 저탄소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오염 예방퇴치를 착실히 틀어쥐며 생태계통의 보호, 복원을 강화하고 중점 생태공정의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구조의 조정과 산업체계의 녹색 전환을 다그쳐야 한다. 일곱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고품질 생활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우선의 정책 실시를 강화하며 기본을 보장하고 최저선을 지키는 직책을 리행하며 군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련의 민생실무를 잘 틀어쥐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부단히 실현해야 한다. 여덟째, 최저선 사유로 안전 발전의 장벽을 튼튼히 지키고 시종일관하게 '시시각각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책임감을 유지하며 위험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정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한 지역의 안정'으로 '전반 국면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작은 전반과 관계되며 시작은 나중의 추세를 결정한다. 당면의 제반 사업을 실속있게 잘하고 경제운영의 안정에 전력하며 대상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투자유지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틀어쥐며 중경생산을 잠담게 조직하고 기구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안전생산을 한치의 느슨함도 없이 틀어쥐어 한해의 '순조로운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 '락착을 힘껏 틀어쥐는 해' 활동을 실속있게 전개하고 주제교양의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확고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단호하게 시정하고 기층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며 일하고 창업하려는 당원간부들의 원기(精气神)를 지속적으로 진작시켜야 한다.

성급 현직 지도자 동지, 원성급 로동자, 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 성감찰위원회 위원, 성각각 민주당파 책임자, 성인대, 성정협 기구 책임 동지, 중앙과 성 직속 관련 부문 단위, 중점기업, 전문대학, 과학연구원(소) 및 각 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 각 현(시, 구) 책임 동지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길림일보

## 《길림신문》 공식사이트 새 얼굴로 네티즌과 만났다

《길림신문》 공식사이트 '조문넷(朝闻网)'이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3월 5일부터 정식으로 독자들과 대면했다.

업그레이드된 '조문넷'은 길림일보신문그룹(吉林日报报业集团)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방정그룹의 최신 뉴스 편집 및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표현방식의 혁신을 통해 번영발전하는 중국의 진실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사회 관심사에 응답하는 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개성적이고 심플한 디자인 리념으로 독자들에게 더욱 간편하고 유쾌한 열독 체험을 선물하게 된다.

새 버전은 시사, 경제, 사회, 문화, 시각, 특집, 기획 등 란목을 골자로 하여 더 넓고 많은 뉴스들을 담고 독자들을 찾아가게 된다.

근 20여년의 발전을 거쳐 《길림신문》은 이미 공식사이트(PC 버전, 터치버전), 워터 공중계정, 디지털신문 등 형태의 뉴미디어 구도를 구축하여 국내외 많은 독자와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 1월 1일 개통된《길림신문》사이트는 중국 조선족사회에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의 민생 정책과 법규를

선전하고 백성중심, 백성참여, 백성봉사를 취지로 줄곧 노력해왔으며 세계 각지 조선족 독자들에게 중국 조선족의 문화, 교육, 경제, 생활 현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이야기와 중국의 목소리를 적극 홍보하였다. 《길림신문》사이트는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를 대담하게 포착하고 계획적이고 다각도로 보도를 조직하여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국제여론을 안정시킴으로써 지방 나아가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비교적 좋은 역할을 하였다.

《길림신문》유창진 부총편집은 "우리는 사명을 명기하고 융합혁신을 통해 뉴미디어의 전파 우세를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의 생동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중국과 세계를 잇는 언론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리행할 것이다. 그동안 《길림신문》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하고 사랑해준 전세계 독자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향후 더욱 성숙되고 정품화된 내용으로 광범한 네티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문넷(朝闻网)' 인터넷 주소는 <http://www.jlcxwb.com.cn> 이고 '조문넷 터치버전'은 쿼일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김파기자



## 우리 나라 최초 역톤급 심해유전 발견



▲ 유정 플랫폼이 개평남유전에서 생산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신화사

중국해양석유그룹유한회사는 8일, 남해 주강구분지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심해 대형 유전인 개평남(开平南) 유전을 발견했다고 선포, 유전의 원유와 가스 지질 매장량은 1억 200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유전은 세계에서 핵잡암형(核杂岩型)이 움푹 들어간 가장 큰 상업적 발견으로 된다. 개평남유전은 남해 동부해역 개평의 움푹한 곳에 위치, 심수시와 약

300킬로미터 상거했으며 평균 수심이 500미터 넘고 최대 유정의 깊이는 4,831미터 되며 매장된 원유는 경질유이다. 유정 드릴이 석유 및 가스층에 닿는 깊이가 100.6미터, 테스트에 의하면 석유 및 가스 하루 평균 생산량은 1,000톤 유당량(油当量)을 초과하는데 이는 우리 나라 심수 심층 석유 및 가스전 테스트 생산량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된다. /신화사

## 2023년 우리 나라 5,997만무 조림 완성

3월 12일은 우리 나라의 제46번째 식수절이다. 전국록화위원회 판공실에서 공포한 <중국 국토록화 상황 공보>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 나라 산, 수, 림, 농, 호, 초, 사 일체화 보호와 시스템 처리를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국토 록화의 전

력적인 추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공보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 나라 5,997만무의 조림과 6,568만 5,000무의 토지개량(种草改良)을 완수하고 2,857만 5,000무의 사막화, 석막화 토지를 다스렸다.

2023년, 우리 나라는 국토록화행동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96개의 전국 중요 생태계통 보호와 복원 중대공정 대상과 25개의 국토 록화 시범대상을 조직, 실시했다. 료녕, 산둥, 하남, 중경, 사천, 녕하 등 6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과학록화시범

건설을 전개했다. 산, 수, 림, 농, 호, 초, 사 일체화 보호와 복원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류질의 처리면적을 6만 3,000평방킬로미터 새로 늘였으며 생태 정령 소류역을 505개 건설했다. /신화사



## 《길림신문》 공식사이트 새 얼굴로 네티즌과 만났다



《길림신문》 공식사이트 '조문넷(朝闻网)'이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정식으로 독자들과 대면했다. 새 버전은 시사, 경제, 사회, 문화, 시각, 특집, 기획 등 란목을 골자로 하여 더 넓고 많은 뉴스들을 담고 독자들을 찾아가게 된다.



'조문넷(朝闻网)' 인터넷주소  
<http://www.jlcxwb.com.cn>

